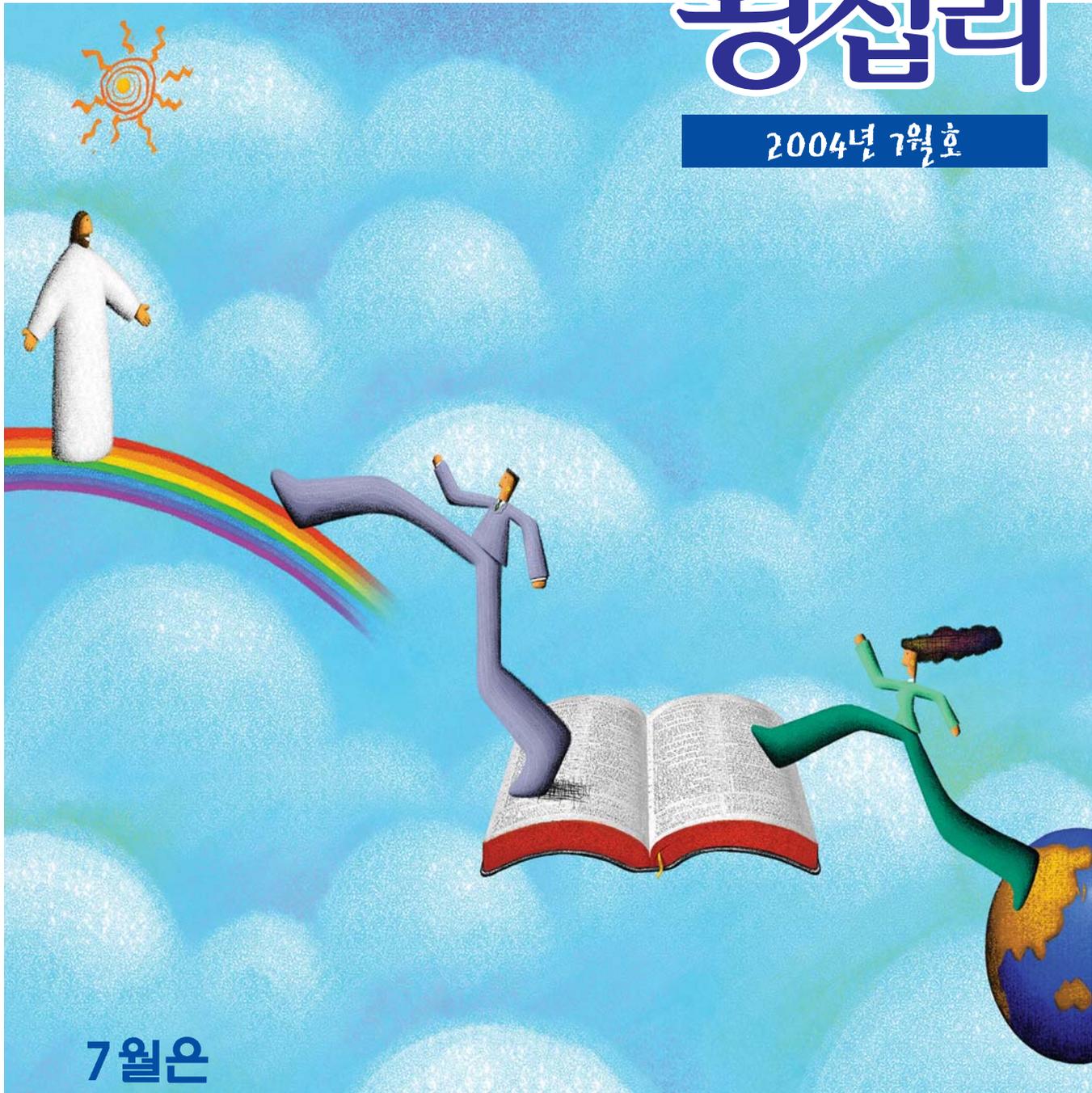


왕십리

2004년 7월호



7월은

여름출애굽의 달

말씀으로 주님께
더가까이

내·바·음·의·풍·경



거친 마음

누가 봐도 거치른 나의 마음.
못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주님은
바다와 같다.

글·사진/ 차주영

목 차 / Contents

- 목회칼럼 / 고지리 위에서 - 4
- 인터뷰 / 소망의 바다 / 전영훈형제 (청년부) - 5
- 기획기사 /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 (중) - 8
- 왕십리이모저모 /
6·27 태신자 초청 기도 주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 11
- 성경편지 / 뱀 세바라 - 14
- 독자투고 / 우리들의 인생은 악혼살부터 - 15
- 건강상식 / 성사의 한방요법 - 16
- 가정에배 - 17
- 책 · 음반소개 - 21
- 요리 / 새송이 불고기 양념국이 - 23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역대상 4:9~10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7월이면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이 여름수련회를 시작한다. 짧으면 1박 2일, 길면 3박 4일의 일정으로 기도원이나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땀흘리며 지내는 그 시간이 때로는 불편함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는다.

풀죽같은 밥을 먹은 일, 개미가 가득한 국수를 들고 앉은 일, 저녁 예배시간에 졸다가 불펜으로 성경책에 금을 그어놓은 일…….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키는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고등부는 지난 겨울수련회에서 신약성경 1독을 하였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금번 수련회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해 보자.

주여 우리의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관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비전을 넓혀 주옵소서.

…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기를 기도드린다.

김재영장로 / 출판위원장

코끼리 위에서

코끼리 등 위에 올라가서 코끼리와 함께 길을 행진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코끼리를 탈 필요가 있나, 전에도 한 번 그 위에 올라타었는데…… 하고 다른 분들이 탈 때 안탈까 하다가 분위기상 코끼리를 타게 되었다. 원 두막 같이 높이 만든 곳에서 코끼리 등 위로 올라간 순간부터 코끼리는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보니 저 아래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였다. 과연 코끼리가 옛날에 전투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얘기가 실감나게 느껴졌다. 위에서 보니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감히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람하게 보였으니까. 옛날 맘모스는 또 어땠을까. 그런데 코끼리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계속 몸을 흔들어서 내가 탄 의자가 매우 크게 앞 뒤로 출렁이며 흔들리는 것이었다.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흔들는데 다른 사람들이 타고 가는 코끼리는 그렇게 흔들지 않는 듯이 보이는데 내가 탄 것이 유달리 흔들리는 것이다. 한 2~30분을 걷는데 계속 실새없이 흔들리고 아, 다른 코끼리를 탈 걸 잘못 선택해서 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저럭 행진을 마치고 내리게 되었는데 다른 코끼리를 탔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코끼리가 다 그렇게 몸을 흔들었던 것이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 흔들렸고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힘들었을 만큼 다 그렇게 흔들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 작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흔들리는 역경과 고난을 같이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남은 괜찮고 나는 힘들고……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나름대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탄식이 없어 보이고 저 집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탄탄대로를 가게 될 것이고…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다가 열등감, 좌절감을 갖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지 않는가. 인생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같이 겪는 고난의 길을 이겨 나가는 축복을 따로 받을 뿐이다. 그리고 보니 이제 한 여름 무더위를 겪을 때이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때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전환점을 얻도록 하자. 여름출애굽을 경험하자. 학생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적에 큰 변동이 오겠지만 우리는 여름출애굽의 기회를 통해 신앙수련회, 등 각종 신앙운동에 참여하면서 다가오는 가을, 풍요로운 축복과 사랑의 나라의 열두 가지 열매를 더불어 맛보도록 하자. 코끼리 등 위에서 겪은 나의 체험같이 '크신 은혜' 라는 코끼리를 위에 앉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의 흔들어주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는 이 체험 속으로, 성령충만의 공동체, 새 출애굽의 전진을 크게 경험하는 여름, 그 속으로 들어가자. 저 풍요로운 계절을 향해.

이 달의 성구

"방기를 다 해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행4:31)



소망의 바다

전영훈 형제 / 청년부

1. 자기 소개

소망의 바다 활동중 (99년 1집으로 시작 ~)
총신대 신대원 3학년 재학중
왕십리교회 도움의 돌 동기
(98년 신국원 목사님 소개로 출석)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호주에서 누나와 매형이 선교훈련을 받고 있음.

2.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고 1 여름수련회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답답해했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개인적인 신앙의 궁금증이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면서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3. 우리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 & 교회에서 섬기는 곳

1998년도에 총신대학교를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좋은 씨앗

의 이유정목사님이 신국원목사님을 소개해주셨고 신국원목사님의 소개로 우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에서 성가대, 찬양팀 간사, 신입팀 간사 그리고 리더로 섬겼습니다.

4.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연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음악 하나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 하나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각각의 위치가 모두 중요하듯이 음악도 여러 은사중 제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음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힘든일

군에 있을 때입니다. 97년 사이판 한인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수련회를 왔었는데 그때 오신 선생님 중 한 명이 중국에서 사이판으로 일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전영훈씨 아니냐고 하면서 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전영훈씨가 쓴 좋은씨앗의 '믿음과 현실사이'라는 곡을 많이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많이 감동 받았었고 그리고 힘들때는 찬양의 내용과 제 삶 사이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찬양 부르는 것과 삶이 다를 때 찬양과 같이 저를 바꾸시려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저를 한꺼번에, 단번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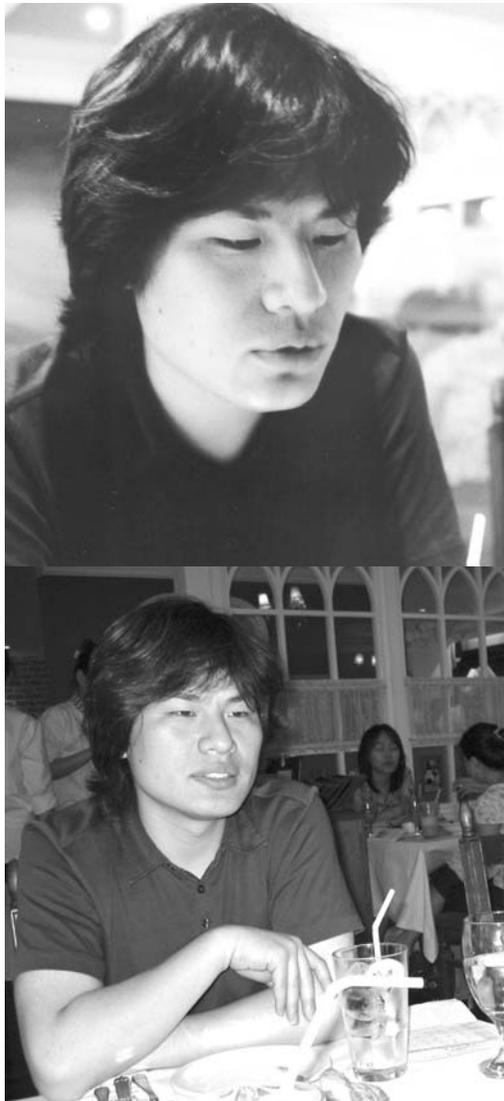
조금씩 바꾸셔서 뒤돌아 보았을때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성숙한 나를 느끼게 하십니다.

3집 주제가 성숙인데요 성숙이라는 주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하려고 했을때 하나님께서 먼저 소망의 바다를 만지셔서 성숙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저희 팀원인 저나 민호기씨가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6. 기독인으로써 음악을 하면서 안타까움.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역자와 뮤지션을 혼동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사역자가 될 단계에서 포기하합니다.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뮤지션으로만 남겠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현장에서 직장인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뮤지션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7. 기독교 음악 뿐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MP3 무료 다운로드 문제

MP3를 무료로 다운받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대적 대세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할것 입니다.

문화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균형잡히지 못한 시각이 지금의 음반시장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문화 사이클이 성립되지 못한, 단지 공짜라는 매력때문에 MP3를 무료로 다운받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8. 음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음악 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겠지만 자신의 모든것을 던져서 한다면 바라는 것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돈때문이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검증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을 달란트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고 시작하되 음악 자체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작곡가라는 정체성으로 음악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포기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곡이든, 악기든, 노래든, 어떤일이든 언젠가는 기갈되고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기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소망의 바다의 비전(A), 동역자(B)

(A) 소망의 바다에는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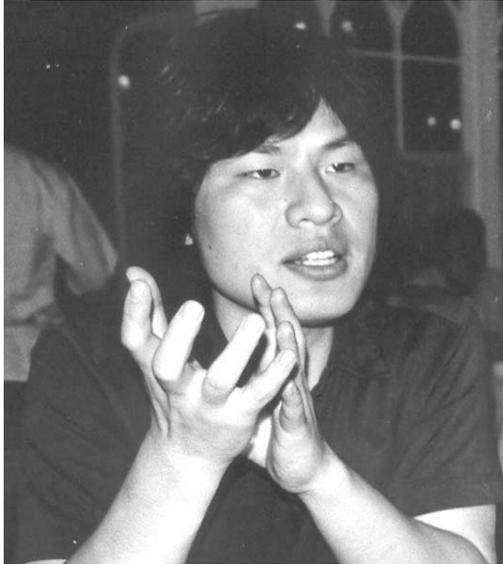
첫째는 한길가는 사역자, 둘째 한결같은 사역자, 셋째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입니다.

사실 가스펠은 시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계속 앨범을 내는 이유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앨범을 내며 가스펠 영역안에서의 한걸의 밀알이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음악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을 믿고 간다면 후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망의 바다’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음악공부를 더하고 싶습니다.

(B) 동역자 민호기

민호기씨는 현재 9월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신학 대학교에서 교회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로, 찬미선교단 문화선교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민호기씨를 처음 만난 건 94년도 1월 선교단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쓴 곡을 먼저 알아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바다 3집 소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주제는 “성숙”입니다.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

게끔 하는 주제이죠.

음악적으로는 1집과 2집을 좀 섞은 듯하고, 2집 이후 나름대로 차분해지고 정리된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좋은 세션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고요 (마침 3집 MR을 가지고 있어서 주영언니가 들어봤어요. 곡만 들어봤는데도 좋다는군요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음반은 7월 중순이나 8월 즈음 나올 예정입니다.

10. 책소개 (음반소개를 부탁했으나 책소개가 좋으시네요)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 - 매트 레드 맨 교회 안에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겠죠.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 (중)

R.J.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상)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중)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하)

나는 이 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내 생애의 최후를 보낼 줄은 이 때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왔지만 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

복학한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아직 졸업이 3년이 남아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중국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졌다. 그리고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가졌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권유로 설립된 초교과적 선교 단체인 런던선교회는 우리 교단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가고자 결심했다. 무엇보다 내가 존경하는 윌리엄 캐리 자신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선교사가 되었던 사람이었다. 중국 현지에서는 죽은 선교사나 몸이 아픈 선교사들로 인해 생긴 공백으로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미국 선교사들이 자금 부족으로 선교 사업을 포기할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런던 선교회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신학생의 신분 때문에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나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편지를 썼지만 교수회에서는 나를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교수회의 결정은 입학과 복학에 이은 세 번째 고통이었다.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면서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는 않았다. 비록 교수회에서는 거절을 했지만, 나는 나름대로 중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란 선교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찾아 읽는 것과 현지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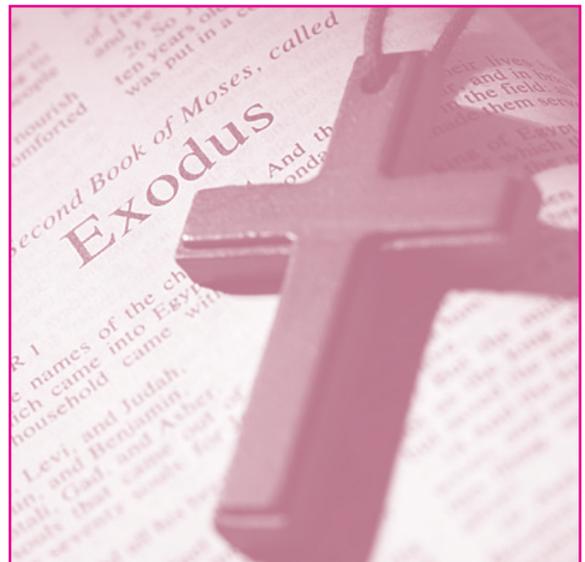
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실성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확실히 미쳐있었다. 중국에서도 빛나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모두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윌리엄 캐리는 내가 따르고 싶은 모범이었다. 그 역시도 선교사로 가기 위한 열정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부터 꿈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졸업반 학생이었던 윌슨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진 비바람 뒤로 중국을 향한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나를 입학때부터 어린 나이와 위험한 중국에 가겠다는 절없는 문제아로 취급하던 교수님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그 해 밀즈 장학생으로 내가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내에 대한 학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는 나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급해주었다. 중국을 향해 그 동안 흘려온 눈물이 그날부터 내게 매일의 삶을 기대와 감사로 채우게 하였다. 결국 나는 중국에 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캠퍼스의 전통이었지만 중국으로 떠나기 위해 졸업을 정확히 1년 3개월 앞두고 결혼을 했다. 사랑스런 그녀는 내가 신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던 가장 힘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던 바로 그 때 만났던 캐롤라인 고트페리였다. 그녀는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가기로 약속했다.

1863년 5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감격스러운 날을 맞았다. 드디어 총회에서 최종으로 선교사 파송을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던 결정이던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눈물을 주르르 떨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지금까지 겪던 모든 감정들이 솟구쳐 오르는 것만 같았다. 교수님들과 동기들은 모두 기쁨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아내 캐롤라인의 눈가도 축축이 젖어있었다. 아내와 나는 마지막으로 영국을 떠나기 전에 고향을 향했다. 고향 하노버를 향하는 길에서 나의 가슴은 초원이 되었다. 수백 마리의 야생마들이 초원을 달리듯 그렇게 가슴이 뛰었다. 고향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극진히 대접해주었고 어렵게 공부하던 지난날을 위로해주었다. 먹지 못해 힘들 때가 있었다. 거절과 오해를 받아 괴로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다시 묵상하게 되었다. 6월 4일 목요일,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환송을 위한 자리였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던 부모님께서는 지난날의 어려움이 생각 나서서 인지 아니면 험난한 중국으로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인지 나를 꼭 안아 주셨다. 한없이 우시며 나를 꼭 끌어안으시던 어머니 뒤로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참고 계셨지만, 눈가에는 그렇그렇 보석이 한가득 빛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매일 중국에 갈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이 선교의 열병으로 살았던 영국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1863년 7월, 아내와 나는 중국으로 향한 가슴 벅찬 항해를 시작했다. 아직 신혼인 우리에게 중국으로의 항해는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배에서 바라보는 장엄한 일몰은 우리를 몹시 흥분되게 만들었다. 눈부신 아침의 태양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도 태풍이 치면 모든 기쁨은 깨졌다. 태풍이 칠 때면 우리는 모여서 찬송을 크게 불렀다. 아침과 저녁에는 항상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다. 드디어 12월초 4개월이라는 항해생활을 마치고 중국에 도착했다. 중국인들의 얼굴이 분간이 가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온 중국어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장 실망한 것은 선배 선교사인 중국 상해의 책임자 무어헤드에게 받았다. 그는 영어로 설교를 했다.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야 함에도 선배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선배 선교사인 무어헤드가 자신의 집을 세를 주고 나와 집을 나누어 쓰자고 했던 것이었다. 선교회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적인 무어헤드 선교사의 아내 때문에 임신 중인 캐롤라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야 했다는 점이었다. 아내는 고향에 대한 생각과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끼니를 굶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이웃에 사는 미국인 선교사의 아내가 그녀를 돌봐주었다. 현지에서의 사역은 정신없이 바빴다. 나는 임신한 아내를 그 미국인 선교사

의 아내에게 부탁하고 상해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무환이라는 큰 무역도시로 향했다. 아내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았지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만 했다. 내가 중국어를 잘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 아내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을 돌봐주던 미국 선교사의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과 함께 계속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아이와 함께 생의 빛을 잃었다. 주변에는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시체는 나흘이나 방치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나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선배 선교사 부부가 원망스러웠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다. 양자강을 내려오면서 어찌할 수 없는 분노로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소리 내어 울부짖어도 가슴속은 꽉 막혀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모든 의욕을 잃었다.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뻔뻔하고 무정한 무어헤드의 아내는 방을 좁더 쓰자고 하더니 결국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더 이상 그런 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비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들인 것을 감요하더니, 중국인 교회가 아닌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고,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야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이것은 더 이상 중국 선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선교사직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푸 항구로 향했다. 그곳은 천진이나 조선, 일본으로 가는 배들의 기항지였다. 그곳에는 함께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윌리엄슨이 있는 지역으로 그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관에서 일하던 로버트 하트 경이 내가 중국어에 능통한 것을 알고 통역관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언제든지 선교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전제로 그 일을 맡았다. 8개월간 통역을 하면서 그동안 배워온 중국어, 러시아어에 이어 몽고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게 되었다. 확실히 나는 어학에 소질이 있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무어헤드가 본국에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버리고 세속 직업에 종사한다는 비방의 글을 보고했다. 그는 내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함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비록 그와 갈등이 있어 물러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선교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성장시키고 세례를 주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인 윌리엄슨이 나를 변호해 주는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본국에서도 나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내를 잃게 하고 선교사직을 잃게 했던 무어헤드가 좋지만은 않았다. 그는 싫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싫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1865년 7월 아내에 대한 상처가 아물 무렵, 나는 새로운 선교 사명을 강하게 느끼고 세속직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윌리엄슨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신앙고백을 할 만큼 성숙되어 있었고,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무엇보다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고 싶어졌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꿈꿔보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조선을 알지 못했다. 관심도 없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준비된 지푸 항구였다. 조선인이 오고 가는 지푸 항구는 지금 돌이켜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이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조선은 아내와 자식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선에 있었다.

영국의 한 청년이 타국 땅 조선에서 죽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땅의 한 청년이 타국 땅 이라크에서 죽다. 고 김선일 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에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듯이 김선일 님의 죽음 역시 이라크의 복음화에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토마스처럼 이라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가슴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순교자전기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2004 태신자 초청 전도 주일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 6월 27일에는 2004 태신자 초청 전도 주일로 섬겼습니다. 그동안 품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온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왕십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시키는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장결자 한 명을 포함한 23분의 어른 태신자와 장결 청년 29인을 포함한 64명의 청년 태신자들이 등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정문 옆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회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증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올해는 6월27일 주일까지 전반기 태신자가 본교회 117명, 백봉산 왕십리 교회 6명등 총 223명의 신자가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청년부는 장결자와 태신자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 함께 들며 초청의 파티를 했다.

낮선곳에서의 낯선이들과의 어색했을 태신자들을 음식과 함께 함으로써 친숙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맞아드림으로 편안한 초청의 자리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장숙현 기자

WANGSIMNI 11



취재 장숙현기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져

제 37회 2004년도 가족 찬송잔치

지난 5월30일 주일 오후3시에 본 교회당에서 교구 관리 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제37회 가족 찬송 잔치가 5월 가정의 달을 총 정리하며 개최되었다. 청년부 임채상 형제와 소흥희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일반 성도 중심의 가족 의미를 뛰어 넘어 몽골인 형제팀, 탈북 대학생 팀,

청년부 교사팀 등 다양한 성격의 가족 개념을 도입하여 찬양을 드렸다. 특히나 행사 중간에 몽골팀과 북한 대학생팀의 찬양은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의 힘든 생활과 탈북 청년들의 남한에서 크리스찬으로 은혜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 좋았다. 아울러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북한식 찬양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통일속에 이북에서도 충만한 믿음생활을 할 수있도록 온 교우들이 기도드렸다.

기존의 1등, 2등의 경쟁방식에서, 참가하는 모든 팀이나 가족에게 다양한 시상상을 수상하여 잔치 개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찬송 잔치에 참여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 중간 중간에 성경퀴즈나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어 참가자 뿐아니라 온 교우들이 행사에 동참하여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방청객들을 즐겁게 참여케 한 두 사회자

장숙현 기자

WANGSIMNI 12



자기 상체만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참가 어린이





심사숙고하는 심사위원단

↙ 고등부지도 이승민 강도사 가족



↓ 탈북 대학생 모임의 북한식 찬양



↑ 몽골예배를 드리는 몽골인들의 찬양

↙ 청년부 교사들의 찬양



↓ 초등부 교사들의 재치있는 카드섹션



취재 장숙현기자



뱀 세 마리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의 선교게시판의 선교사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WANGSIMNI 14

굼즈 선교 기지(미션 스테이션)에서는 간혹 들짐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골짜기 아래로 노루 한 마리가 뛰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물론이거니와 간혹 산돼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굼즈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은 개입니다. 개는 원시 부족에서도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동물입니다. 굼즈의 개들은 꼬리가 위로 바짝 올라가 있고 몸뚱이가 큰 편은 아니면서 말라 있습니다. 사람들도 먹기 힘든 터에 개에게 먹이가 제대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아지를 하나 구해 기르려고 하는데, 마땅한 강아지가 없습니다. 한 아가오 부족의 마을에 들러 강아지를 물어 보았더니, 개들이 광견병에 걸려 많이 죽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미친개들이 드물지 않게 생겨, 반드시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굼즈 마을에서는 고양이가 드문데, 아직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스테이션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존이 기르는 고양인데, 이곳에 들쥐가 워낙 많아 존이 살고 있는 바흐르 다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고양이는 암놈이라서 그런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나는 고양이를 꽤나 싫어하는 편이라 별로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데도, 이 놈은 내게 와서 자기 몸을 비비기도 합니다.

존이 임시 머무는 초가에서 감자와 당근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고양이 녀석이 문 옆에 놓아둔 큰

물통들을 응시하는 시선이 여간 예사롭지 않았습니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 세우고 꼬리를 바짝 든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옆으로 다가가 녀석의 시선을 쫓아가 보니 물통들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치우니 그 곳에서 검고 얇은 뱀 한 마리가 꼬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무수한 별 아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존의 부인 필리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물통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물을 뜨러 간 아내도 물통이 흔들렸었다고 말하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필리스에 의하면 물통들이 흔들려 하나를 치우는데 갑자기 “후-”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통들을 치워보니 이번에는 색깔이 아롱지고 제법 통통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녀석의 배를 보니 적어도 들 쥐를 세 마리나 잡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늘지고 시원한 물통 뒤에서 지내다가 들쥐가 지나가면 잡아먹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잡은 두 마리와, 그 전날 잡은 한 마리를 나무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길어도 다르고 몸매도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뱀들입니다. 어느 녀석이 독이 있는 녀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한테 모아 기념 촬영을 한 후 화장시켜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살 부터

오랫동안 질병으로 앓고 계신 시아버님 곁에는 언제나 말없이 앉아계신 시어머님이 계셨다.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어디 가지자고 하면 항상 먼저 신발신고 기다리셨으나, 불편하신 아버님때문에 맘대로 다니지도 못하신 어머님이시다.

이제 돌보시던 아버님이 먼저 천국가시고 어머님만 혼자 외로이 계시실 때 나는 ‘어머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경로당에 가서서 친구분들 사귀라고 권하자 할머니들이 화투만 친다고 하시며 안가신단다. 나는 10원짜리 동전을 한웅큼 손에 쥐어드리며 이거 다 잃어도 좋으니 가서서 재미있게 얘기하고 놀다 오시라고 권했지만 싫으신지 표정이 시큰둥해 하시며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겠다고 하신다. 작은 몸집으로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모습이 애처로워 나는 경로대학에서 만들다 남은 도라지꽃 만드는 종이를 내어밀며 “어머니 이거 참 예쁘지요? 만들기도 쉬워요. 이거 만들어서 시골 친구분들 나누어 드리세요.”라고 호들갑스럽게 떠들었다. 매사 의욕이 없어진 어머니는 만들기도 차 싫으시다며 작은 눈으로 텔레비전만 바라보시며 한 말씀 하신다. “살만큼 살았으니 네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인생은 일흔 살부터 라는데…… “하면서 경로대학 18번 노래인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를 불렀다. 어린아이같이 온갖 재롱을 다 떨어가며 멋들어지게 불렀다. 귀가 솔깃해지신 어머님은 “뭐 그런 노래가 다 있어?” 하시며 따라 부르신다. 나는 얼른 악보를 드리며 더 신나게 3절까지 다 불렀다.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언제나 행복감에 살아갑니다.

칠십에 우리들을 데리러 오면 지금은 안간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재미있게 따라 불렀다. 나는 설거지를 하거나 마루를 닦으면서 이 노래만을 계속 불렀다. 어머님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씩씩거리며 숨찬 걸 참고 몇 번이고 계속 불렀다.

어느 날 마늘을 심어야 내년에 마늘 캐 먹는다고 하시며 시골에 다녀와야겠다고 하신다. 사시던 곳이 그림고 친구 분들도 계시니 가시고 싶으신가 보다. 나는 시골에 내려가시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불러 보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흥이 나서 신나게 부르시는데 박자나 음정은 엉터리지만 가사는 거의 외우다시피 잘 부르신다. 그제 내 집에서 부르시던 어머님의 마지막 노래가 될 줄이야……. 시골에 가신 어머니는 길 건너 구역예배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아버님 따라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말 한마디 남기지 않으시고 훌쩍져 천국으로 떠나 가버리셨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고,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건만, 그렇게 떠나가신 어머니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 다만, 마지막 흥얼거리듯 부르시던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노래만이 나의 컷가에 여운을 남기며 맴돌 뿐이다. 음정도 박자도 무시한 채 멋들어지게 노래 부르시던 어머님을 기리며 눈물로 이 글을 적어본다…….



한 순 자 권사
(경로가정대학 교사)

발췌 : 경로가정대학 학보

설사의 한방요법

설사는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설사를 경험하거나 지속적인 설사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설사를 그리 만만하게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어린아이에게는 감기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기도하다.

▶ 설사의 원인

설사의 원인은 미생물이 장에 침입하여 생기는 감염성 설사 외에도 과식이나 진한 우유, 아기들의 경우 부적절한 이유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유 알레르기나 알레르기성 위장염 같이 알레르기성 설사도 있으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의 염증이나 수술등으로 장의 일부분이 결손되었을 때, 흡수장애, 면역결핍증 등이 있을 때도 설사가 동반된다. 설사가 몇지 않고 몇 주 이상(대개3주) 계속될 때 만성설사라고 하는데 우유단백 알레르기나, 과민성 대장염, 흡수장애증후군, 기생충감염, 대장의 염증성질환, 당뇨병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 종양 등이 원인일 수 있다.

▶ 설사가 심할 때의 처치

설사가 때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설사와 함께 우리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탈수를 일으키고 동시에 우리 몸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전해질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의 경우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가벼운 설사라 하더라도 탈수에 쉽게 빠지고 탈수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게 설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식을 피하고 다음과 같은 음식을 피하면서 조심하면 대개 2~3일 정도면 설사는 좋아진다.

※ 설사 복통시에 피해야 하는 음식우유, 유제품, 요쿠르트, 신 과일, 과일 주스, 녹즙, 야채즙,

익히지 않은 음식, 콜라같은 찬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 커피 등 구토와 열을 동반한 설사를 할 때는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끓인 보리차 물 1,000cc에 설탕 2 티스푼, 소금 1/2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전해질 보충도 된다. 요즘은 시중에 전해질 이온음료나 경구용 포도당 가루 등이 나와 있어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설사가 난다고 식사를 거르지 말고 음식은 미음이나 쌀죽 등 주로 소화기 쉬운 것으로 하고 반찬은 담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한다.

설사와 동반되는 복통이 있을 때는 따뜻한 수건 등으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 지사제나 기타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아기의 경우 우유와 이유식을(특히 과일) 4~5시간 중단하고 보리차와 미음을 먹이면서 상태를 관찰한 후 차차 우유의 양과 농도를 늘려가도록 한다.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고 설사가 3일 이상 계속될 때, 설사변에 점액질이나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며 설사를 하는 경우, 평소 당뇨, 간장질환등을 앓아 몸이 쇠약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아야한다

▶ 설사시 한방요법과 민간요법

- 1)너무마르지 않은 연한 곳감 3-4개를 물에 달여 3번에 나누어 먹는다
- 2)석류나무껍질을 8g 달여서 하루 2-3번에 나누어 마신다
- 3)마(산약)과 꿀껍질을 8g씩 물에 달여 매일 3번 마신다
- 4)푸른매실을 즙을 내 2-3숟가락 먹인다
- 5)이질풀을 4g 달여서 마신다
- 6)жат은 만성 설사로 고생할 경우에는 백출 12g 황련 2g을 달여서 장기간 복용하면 좋다

“ 감사하라 ”

성경 / 데살로니가전서 5:18 · 찬송 / 205장, 355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은 쉼(안식)을 얻는데 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전(殿)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주의 날은 주님 주시는 안식(쉼)을 누리면서 복을 받는 날이다.

1. 주님의 쉼(안식)에로의 초청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아온 사람은 깊고도 아름다운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참된 안식이다. 예수님 외에는 이처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길이 없다.

- ①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은 우리가 (내가)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앞에)나올 때 시작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로 나아가야 한다. “다” 오라고 하신다. 이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다 초청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였다.
- ②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쉼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쉼(안식)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한다.

2. 쉼(안식)을 얻는 비결

우리가 쉼을 얻는 비결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메고(지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다. 자기 죽음이 없이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멍에를 메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소에게 씌우는 기구이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네 인생의 고삐를 나에게 다오 내가 계획한대로 너를 인도할것이다.”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계속 예수님께서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하셔야 할 일(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짐이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 때에야 비로서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 섬기는 기쁨 ”

성경 / 창세기 18:1-15 · 찬송 / 204장, 318장

1. 여호와께서 미르세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 가지 마옵시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14.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송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길손을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1. 섬기기를 즐겨하라!(2절)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세 사람을 보자 나타낸 반응을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는 구절은 아브라함의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을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섬기기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주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일은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2. 누구든지 잘 섬겨야 한다.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은 낯선 외지 나그네였다.(2절)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의 삶에 유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길을 가면서 너무나 힘이들어 보였기에 자신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껏 섬겼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유익에 관계하지 않고 *어렵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소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2)

3.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6-8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다.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섬김의 정신이 분명한 아브라함은 이일을 우선으로 행했다. 아브라함은 *시간 *정성 *물질을 다하여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무슨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섬겨야 하며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즐거 대접해야 한다.

우리 왕십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섬김의 축복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감사하라 ”

성경 / 데살로니가전서 5:18 · 찬송 / 205장, 355장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발 달린 동물이다”라고 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고 감사에 인색해지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 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다.(딤후3:1-2).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훈하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일까요?

1.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en panti)’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영어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로 번역을 한다.

1) ‘어떤 형편에서든지’ 2) ‘모든 일에’ 3)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아니라, 큰일에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참 뜻이다.

또한 바울은 감사와 자족하는 생활을 하였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4:11-12)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했고, 귀한 삶을 살았다.

2.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남들이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했다.

우리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는 1)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2) 살아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니 감사하고 3) 예수님을 믿으니 감사하고 4) 할일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3.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것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들이다.

1)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들 2)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과 자녀들 3)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다. 당연하다고 생각할때는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작은 것에, 미약한 것에 주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소망을 이루려면”

성경 / 민수기 14장 4-10절 · 찬송 / 84장, 189장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 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 온 회중이 그들을 들로 치러하는 동시에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 과거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임을 간절히 설득하였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1. 기도해야 한다.(5절)

모세와 아론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자, 즉각적으로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백성들의 뜻하지 않은 원망과 불평하는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길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기도는 어려움 가운데서의 *해결책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염려만 하지 말고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고민하면서도, 마음을 낙심케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2.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6-10절)

비록 현실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그들 보다 크고 강한 민족 야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문제는 나아가야 하지만 자신이 없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때 성장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양7:26)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듣고, 배우고, 감동 받은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실천해야만 한다.

3.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11절)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이 현실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것을 ‘축복의 씨앗 심기’라고 표현한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 봄에 겨울내 애지 중지하며 보관했던 씨앗을 아까워하지 않고 밭에 심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 씨앗을 아까워하여 심지 않는다면 농부는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뿌리도 아무때나 농부 기분대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기에 맞게 뿌려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뿌리고도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므로 가을에 수확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앞에 놓여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관심 내 한 생명과 건강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결코 구원받고 훈련받은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에게 붙들린 삶



저 자 : 잔 데이비드 헤팅어
(역자 / 고광석)
출판사 : 한언
가 격 : 12,000원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기복적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누구든 예수를 통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기독교 본래의 복음에서 ‘거듭남’은 뒤로 미루어 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이 타락한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은 무어라고 하실지 걱정스럽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마치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 책의 저자는 ‘예수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졌던 제자들은 철저하게 변화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버렸으며, 생각도 영혼도 완전

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떤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나의 이기심과 권위와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관심과 욕망은 그대로 간직한 채, 주일에만 성스럽고 한없이 인자한 신자로 돌변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인가?

이 책은 우리가 우리에게 편하게 해석한 성경구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정도(正道)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잘못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예수에게 사로잡힌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논 리 야 놀 자

일곱개의 전선

빌딩공사를 하려면 7개의 전선을 1층부터 5층까지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았더니 똑같은 색깔의 전선을 구별도 없이 한 개의 파이프에 넣어 버렸네요.

견출지, 연필, 그리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를 가지고 있을 때, 1층과 5층 사이를 최소한 몇 번 오르내려야 각 전선에 번호를 매길 수 있을까요?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더 베스트 오브 모던 워십 25+5

HERE I AM WO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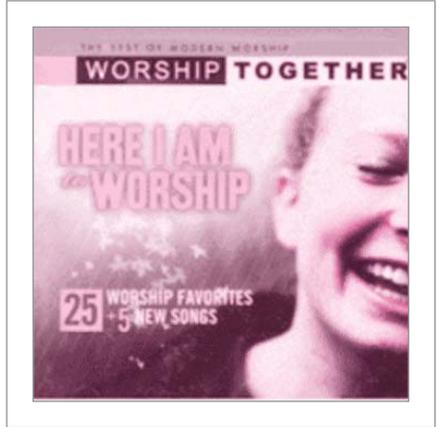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워지는
모던 워십 25곡 컬렉션

이 음반의 타이틀 곡인 "Here I am to worship"은 요즈음 4부예배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빛되신 주"라는 곡의 원곡이기도 하다.

"..... 나 주를 경배하리 앞
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
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
고 놀라우신주....."

우리가 듣고, 부르는, 그리
고 부르게 될 찬양들의 원
곡이 여기에 많이 수록되
어 있고, (꼭 그런것은 아
니지만) 원곡으로 깊은 감
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워십리더 : 딜리리어스,
뉴스보이스 외 다수
기획사 : 인피니스
가격 : 18,500원

WANGSIMNI 22

Praise

Acoustic CCM Jazz Team

2004 The Maple

감동의 찬송을 피아노 트리오와
색소폰쿼텟의 하모니로

'내 진정 사모하는', '선
한 목자 되신 우리주' 등
의 찬송가와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등 모든
교인이 아는 찬양을 새롭
게 편곡을 하여서 내놓은
연주음반이다.
재즈풍이라고 해서 듣기

거북할 것 같았지만, 들어
보게 되면 한국적 정서에
아주 어울리는 소리로 사
람들의 귀를 끌어당긴다.
운전하는 차 안에서, 집에
서 쉬면서 들으면(그 외에
도 가능하겠죠 ^^) 우리에
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제작사 : New Song Korea
가격 : 10,000원



FOOD

꼭꼭~향긋한

새송이버섯고기양념구이

한번 먹어본 새송이버섯에 맛을 들었다고 할까요. 팔자 스스로 어릴적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버섯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그 쫄깃함, 그 감칠맛을 맛을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버섯은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물성 섬유가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이미 소개한 바도 있죠. 오늘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영양 반점의 요리를 공개합니다.



• 필요한 재료

새송이버섯 200g, 유장양념(참기름 1큰술, 간장 1큰술), 불고기양념(간장 2큰술, 배간 것 4큰술, 양파 간 것 2큰술, 설탕·다진마늘·깨소금 1작은술씩, 다진파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약간), 식용유약간

유장양념을 발라 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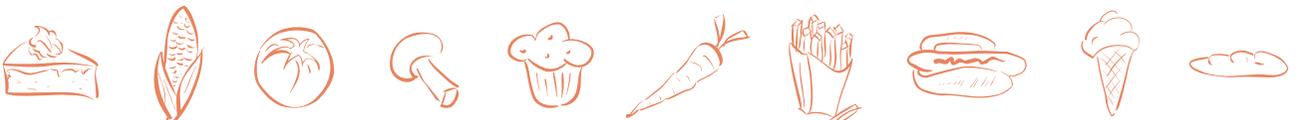
2. 기름을 약간 두른 팬에 새송이버섯을 얹어 애벌 굽는다.
3. 준비한 양념을 분량대로 섞어 불고기양념을 만든다.
4. 애벌 구운 새송이버섯에 불고기양념을 발라 잠시 재었다가 팬에 다시 한번 살짝 굽는다. 오래 구우면 양념이 타게 되므로, 버섯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구워낸다.

• 이렇게 만드세요

1. 새송이버섯은 모양을 살려 0.3cm 두께로 도톰하게 저민 뒤

※ 맛내기비결!

참기름과 간장을 3대 1의 비율로 섞은 유장양념으로 밀양념하면 특유의 담백하고 쫄깃한 맛을 살릴 수 있다. 진한 양념 대신 유장양념에 소금만 뿌려 구워먹어도 맛이 일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오전 9시
 유년부·초등부 2부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1부 성경공부 :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http://www.wpc.or.kr> ☎ 교회 : 2299-1011 출판실 : 2295-0114 FAX / 2292-0309

만든이들 / 간사 : 이승민 강도사 주간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집사, 배승원, 홍지혜, 이수정, 임현석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사진 : 차주영